

# 통일신라·고려시대 부산지역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김 현 라  
(부 산대 학 교)

## 目 次

- I. 머리말
- II. 시기별 연구현황과 특징
- III. 통일신라시대 부산역사의  
연구 동향
- IV. 고려시대 부산역사의 연구  
동향
  - 1) 문헌부분
  - 2) 발굴관계자료
- V. 맺음말

## I. 머리말

부산지역사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지역사 연구가 이 시기에 진행된 것은 1963년 직할시로의 승격으로 부산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주로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이하 시사편찬위원회라 함)의 문헌학적인 연구와 부산시립박물관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시사편찬위원회는 1962년 『항도부산』을 발간하여 문헌자료의 발굴과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부산지역사 연구는 전문학자에 의한 검증된 작업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애향심에 기반을 둔 향토사학자들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전문학자들의 시각이 지역사 연구에 미치지 못한 한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나 1978년 12월 부산시립박물관과 1996년 10월 북천박물관의 개관은 부산 지역의 선사문화는 물론 가야사 복원을 위한 발굴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주목할만한 결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연구는 전무하다. 부산역사의 연구는 부산이 시기적으로 가장 많이 부각된 개항과 일제강점기가 중심이 되었다. 물론 이와 함께 부산향토사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 발굴도 뒤따랐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항도부산』 4호~7호에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물이 거의 대부분이라

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에 제외된 권호에는 부산지역의 왜관과 관련된 논문, 선사시대 논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중앙 학계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부산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이거나 이것도 부산지역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한국사의 일부분으로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부산지역사 연구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전문적인 지방사연구자의 부족, 지역 관계 사료의 영세함, 지방사에 대한 인식의 결여, 전대의 역사적 배경 및 역사연구 시각의 편협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만이 역사연구의 포괄적, 종합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분위기는 1990년대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일소된다. 이 시기는 한국정치에서 획기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즉 1989년에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초의회 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991년에 『항도부산』을 복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획주제로 복간된 『항도부산』 8호의 내용도 ‘지방화시대와 부산’이라는 기획주제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항도부산의 출판 이력을 보아도 부산지역사 연구는 1990년대의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간된 『항도부산』에 전문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과 다른 고무적인 변화였다.

이상과 같은 부산지역사 연구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에 통일신라·고려시대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대상을 연구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에 조금이라도 초석의 역할을 하고자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개관하도록 한다.

## II. 시기별 연구현황과 특징

통일신라기와 고려기의 부산역사 연구는 다른 시기와 달리 1970년대에 들어와 개략적인 통사가 서술되었으나 전문연구자에 의한 연구는 1989년에 발간된 『부산시사』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표에서도 확인이 된다.(1990년 이전)

1960~1990년까지의 부산역사의 연구현황1)

시대별 시기별	총류	선사	고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대	계
1960~1969	1	3	1			6	13	24
1970~1979	4	5	2	1	1	3	24	40
1980~1990	5	18	1	2	1	5	4	36
계	10	26	4	3	2	14	41	

이러한 문제는 여러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 먼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연구시기인 통일신라를 단독으로 구분하지 않고 삼국과 함께 고대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삼국을 통일

1) 홍연진, 「부산사 연구현황」 『항도부산』 10, 1993, 239쪽의 표를 수정한 것이다.

한 신라는 넓어진 지배영역과 민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전과 다른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부산의 위상과도 관련이 된다. 그것은 지방제도의 재편과정에서 부산이 동래군(신문왕대 거칠산군)으로 되어, 이곳이 삼국통일의 주역인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측면에서 방위하는 지역으로 성장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독립적인 연구물은 전무하고 부산 역사의 전 시대의 일부분으로만 다루고 있는 점이다.<sup>2)</sup> 예를 들어 1974년에 발간된 『부산시지』(상)과 1989년 이후 『부산시사』에서 그러한 정황을 볼 수 있다. 물론 후자의 『부산시사』는 부산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즈음하여 시사를 대폭 개정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고,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연구자가 참여하여 한국사의 연구성과 속에서 부산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보였다. 또 부산에 인근의 김해와 진해 그리고 기장지역이 편입되는 행정적인 변화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발굴과 그에 따른 연구도 진행되었다. 다음은 1990년에서 2006년까지의 논문의 흐름과 경향에 대해 보도록 한다.

먼저 행정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보도록 한다. 1989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해에 김해의 녹산지역이 부산의 강서구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행정적인 추세에 맞추어 1992년에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녹산문화유적 학술조사 보고서』를 간행했다. 이 보고서는 고고학분야와 문헌분야 그리고 기층문

2) 정중환,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지』(상), 1974.

정중환·신경철, 「삼한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 1989.

정용숙·채상식, 「고려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 1989.

정용숙, 「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의 역사와 자연』, 부산 라이프 신문사, 1992.

신경철·박경원, 「삼국통일신라 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 4, 1991.

화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녹산지역 전반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 있다. 이 글 속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의 문화재에 대한 연구도 있다.<sup>3)</sup>

그리고 기장지역도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기장지역에 대한 연구는 1995년 기장군이 부산으로 편입되어 부산은 새로운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이곳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민족문화』에 기장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실려있다.<sup>4)</sup>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기장지역연구는 지방제도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1998년에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로 종합·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기장의 매장문화재, 기장의 성곽과 봉수, 사찰, 향교, 그리고 금석문자료 등을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문헌에만 의존했던 지난날의 연구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인 자료의 발굴을 통해 보다 생동감있는 역사로 다가가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항도부산』 19, 20호에 보이듯이 신라와 고려시대의 부산역사가 단독주제로 되어 학문적 성장과 관심을 가져왔다. 물론 아직까지 통일신라만의 독자적인 연구물은 등장하지 않는 한계는 지적된다. 그러나 각 시기별의 주요한 연구내용이 행정구역과 통치구조, 수취구조와 연관된 사회, 사상, 민속문화, 문화재, 대외교류 등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시대상을 복원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문헌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발

3) 이 보고서를 기초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된 『한국문화연구』

4, 1991에 녹산지역 관계 논문이 정리되어 있다.

4)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6.

굴 복원과 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특히 고려시대는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헌사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그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를 공부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예를 들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구포 덕천동유적』과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부산 망미동 동래고읍성』에 대한 발굴보고서가 그것이다.<sup>5)</sup>

『구포 덕천동유적』은 삼한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목관묘와 옹관묘를 조사하여 지역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의 경우는 목관묘의 발굴을 통해 다양한 유물, 청자와 구슬 등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부산 망미동 동래고읍성』의 대상지역인 고읍성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읍성터로써 그 입지적인 의미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 보고서는 시굴에 대한 결과물로 읍성지 일부에 대한 것이라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시기 읍성의 위치와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역사연구의 주체가 변화되고 다양화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의 부산지역사 연구는 전문학자 보다는 향토사학자 등이 담당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각 대학의 교양과정의 하나로 지역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1988년에 활동을 다시 시작한 시사편찬위원회는 부산의 역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 간행하여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5) 동아대학교 박물관, 『구포덕천동유적』, 2006; 동의대학교박물관, 『부산망미동 동래고읍성』, 2006.

전기를 마련하고자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여 여러 연구서를 출간하고 있다. 이같은 기본작업을 토대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부산역사의 종합적인 연구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자료의 발굴·간행·부산역사의 연구지의 발간·당대사자료의 체계적 정리 보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사연구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한편,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연구는 부산에 소재하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들의 활동은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부산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까지도 조사·연구하여 부산 문화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박물관의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고려시대의 유적지인 만덕사지의 발굴이다.<sup>6)</sup> 이는 부산의 역사 가운데 사료가 부족한 고려시대를 복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노력의 하나로 보아진다. 또한 이러한 발굴조사 이외에도 부산지역의 유물·유적에 대한 연구를 각종 학술지 및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보》를 통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발굴현장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고려기와에 대한 연구<sup>7)</sup>는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또한 시립박물관은 부산역사에 대해 시민과 함께 호응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의 문화재를 알리는 『부산의 문화재』 등도 발간하고 있다.<sup>8)</sup> 이 가운데 통일신라와 고려의 문화재에 대한 소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6) 북천박물관에서 2001년 9월에서 2002년 1월까지 만덕사지 일부를 3차 발굴하였다(북천박물관, 「부산 만덕사지 제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2002 참조).

7) 최정혜, 「고려시대수막새에 대한 검토」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2, 1993; 「고려시대 평기와의 편년연구」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5, 1996.

8) 최근에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문화재 관련 서적을 출간하였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2002)와 『부산의 문화재』(2006)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역사의 복원작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학자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경남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학 전반에 대한 전통문화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주력하는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기장군과 녹산지역의 매장문화재의 내용을 담은 발굴보고서와 『韓國民族文化』라는 학술지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통일신라와 고려의 역사를 복원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는 1910년 이전까지의 금석문을 조사하여 2002년 『부산 금석문』이라는 자료집을 출간하였다.<sup>9)</sup> 이 자료는 부산에 흩어져 있는 금석문을 수집·조사하여 기존의 자료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는 고려시대의 것이 없어 아쉬움은 있지만 당대의 사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1966년에 개관한 이래 정기적으로 발굴보고서를 발간하여, 1970년의 동래 복천동고분군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구포덕천동유적지 발굴보고서까지 이어졌다.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 인터넷사이트에서 2002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고고역사학지』를 발간하여 지역문화 및 고고역사학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동의대학교 박물관은 1986년 개관한 이래 가야사 연구에 치중하였으나 최근 고려시대 고읍성 지역의 시굴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부산 망미동 동래고읍성』이 그것이다.<sup>10)</sup>

9)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부산광역시, 『부산 금석문』, 2002

10) 동의대학교박물관, 『부산 망미동 동래고읍성』, 동의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12, 2006.

이상에서 1990년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를 세분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역사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 Ⅲ. 통일신라시대 부산 역사의 연구 동향

통일신라는 그 시기별 특징이 이전의 삼국과는 다르다. 즉 정치·사회·문화 전방면에 걸쳐 삼국을 아우르는 기준과 그 줄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산은 삼국시대의 가야지역 또는 신라의 변방의 역사가 아닌 삼국을 통일한 왕조의 수도를 방어하는 중요지역으로서 그 위상은 달라졌다. 더불어 이 지역은 가야의 특수한 교역체계를 그대로 이어받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다양한 성격이 상정된다.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김의환, 정중환에 의해 선구적으로 진행되었다.<sup>11)</sup> 이를 바탕으로 각 부분을 세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통일신라의 행정부분은 정용숙의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가 있다.<sup>12)</sup> 통일 이후 신라는 삼국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중앙관제를 정비하고 전제왕권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백제 및 고구려 고지에 대한 국가적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신문왕대와 경덕왕대

11) 김의환, 『부산지방의 지명의 유해』, 태화출판사, 1970; 정중부, 「삼한·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 1989.

12) 정용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 『항도부산』 19, 2003.

에 살피지는데, 전국을 9주, 5소경과 117개군, 293현을 설치하였다.

부산은 신문왕대는 삼량주 소속의 거칠산군으로 대증현과 갑화양곡현이란 두 개의 현을 영속한 행정구역이었다. 757년(경덕왕 16)에 전면적으로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주와 군현의 명칭을 한자식으로 개명하고 9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할군현 수를 조정하였다. 삼량주를 양주로,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갑화양곡현을 기장현, 대증현을 동평현으로 개명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명호의 개명을 단순히 한자식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중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는 전제주의적 정치체제를 이루려는 지배층의 의도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의 공물을 중심으로 부곡과 향에 관한 내용도 살피고 있다. 『경상도지리지』에 동래지역의 공물로 벌꿀, 해조류, 건어물, 어패류, 약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물품은 주로 동래의 4개 부곡과 향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필자는 이 가운데 형변부곡과 고지도부곡 그리고 부산부곡을 주목하였다. 형변부곡은 『삼국사기』에 남쪽 해신에게 제사하는 장소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곳을 국가적 제사를 준비하는 특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지역으로 보았다. 고지도부곡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고지도거(古智島陞)’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말목장지로, 부산부곡은 부산지역의 소금생산의 주요한 지역으로 상정하였다.

다음은 신라말에 지방세력으로 성장한 호족과 부산과의 관련에 대해 보았다. 신라말에 전국에 형성된 지방호족은 대개 주와 군을 중심으로 그 세력권이 이루어졌다. 부산 인근만 보더라도 양산의 김인훈, 김해의 소율희, 울산의 박윤웅 등이 그러

한 인물이다. 그런데 부산은 신라말의 위상으로 보더라도 호족 세력의 성장이 추정되지만 현재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추측으로 먼저 최치원과 관련성을 상정하고 있다. 최치원은 신라말의 대학자로서 신라의 골품제를 부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가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 10여조는 인사개혁을 비롯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건의안이었다. 그러한 이 개혁안은 진성여왕을 비롯한 진골귀족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자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 때 찾았던 장소가 해운대이다. 신라 3최의 일인으로 명명되는 반신라적 지식인의 한 사람인 최치원을 기리는 것은 부산 사람들의 반신라적 정서와 관련짓고 있다.

이러한 부산의 반신라적 정서는 절영도의 명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삼국기 견훤과 왕건의 대결 속에서 견훤은 왕건에게 절영도의 명마 1필을 왕건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따라서 부산은 후삼국기의 격동기에 반신라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견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호족의 성장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호족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래정씨의 정문도(鄭文道)이다. 『동국여지승람』권3, 동래현 고려 인물조에 나말여초에 살았던 사람으로 정문도를 들고 있고 그는 읍리 출신으로 세 아들을 모두 과거에 급제시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읍리는 고려의 지방사회에서 호장 향리 등으로 불려지는 지방 토호층으

로 필자는 『연조구감(掾曹龜鑑)』을 들어 읍리의 진신이 호족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문은 사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상황을 『조선왕조실록』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의거하여 서술한 부분도 있어 약간의 염려를 요한다. 그러나 신라말 부산의 동향과 관련하여 최치원을 부각시켜 이 지역의 정서를 반신라적인 정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참신한 논의로 보인다. 이는 사료에 나타나는 견훤의 절영도 명마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정서를 설명해주는 데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기장의 행정조직 연구는 정용숙은 「신라·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와 기장」에서 찾아진다.<sup>13)</sup> 8세기 경덕왕대에 중앙집권제의 일환인 중국식 군현제의 실시에 의해 이곳은 갑화양곡현에서 기장현으로 개명되었다. 필자는 기장이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다른 지방보다 공물부담이 무거웠을 것이며, 그 공물이 어류 해조류 및 소금의 생산과 운반으로 보았다. 이러한 무거운 조세부담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운동으로 추진되어 고려의 건국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세수취문제는 김기섭의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유산」에서도 약간 언급하고 있다.<sup>14)</sup>

다음으로는 통일신라기의 사회부분에서는 김기섭의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사회-수취체제와 그 내부의 민을 중심으로-」가 있다.<sup>15)</sup> 이 글은 통일신라기 동래군의 설치에 해

13) 정용숙, 「신라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와 기장」 『한국민족문화』 8, 1996.

14) 김기섭,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민족문화』 8, 1996, 4~6쪽.

15) 김기섭,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사회-수취체제와 그 내부의 민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19, 2003.

안방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속에 수도 경주의 배후지역으로서의 부산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조선전기의 자료에 의거한 한계점은 있지만 동래군과 기장현의 호구수와 신라촌락문서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촌락을 재구성하여 보다 사실감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한다. 통일신라시대 부산은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에 의하여 일찍부터 지방관인 태수 또는 나두, 도사 등이 파견되었고, 이러한 지방관을 매개로 각 촌락은 신라의 직접적인 지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특히 7세기 말에 이르면 행정단위로서 군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거칠산군에서 개칭된 동래군은 상당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한다. 이에 필자는 부산의 위상이 이렇게 강화된 원인을 『동국여지승람』 동래군 형승조의 표현대로 “땅은 해안가에 있고 대마도와 가장 가깝다”고 하듯이 해안방어의 중요성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동래군 태수는 동평현과 기장현을 양 날개로 동남방의 군사적 방어를 주 기능을 하었다고 본 것이다. 매우 타당성 있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제도사 측면에서만 부산의 변천을 보았던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부산의 지리적인 특징이 감안된 것이므로 구체성을 띤다고 하겠다.

또한 동래군을 중심으로 동평현과 기장현의 상하 명령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즉 동래군은 군치소를 중심으로 아래에는 몇 개의 직속촌이 있었고, 영현이었던 동평현과 기장현도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듯이 몇 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동래군에는 태수와 외사정 및 군리로 구성된 군사(郡司)를 중심으로 군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아래의 직속촌이나 영현의 현령에게 그 명령을 하달

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동래군은 하나의 현이 9~10개의 촌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통 한 현에는 900~1000명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성과를 따른다면 영현을 제외하고 『경상도지리지』의 24개 촌락의 2/3 정도로 보아 16개 정도의 규모로 보았다. 지금 현재의 직속촌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정도이다. 동평현은 부산진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등이, 기장현은 오늘날의 기장군이 각각의 주요한 영역에 포함된다고 추측하였다.

필자는 이상의 행정조직 하에서 토지 결수를 파악하여 소위 ‘동래군전정주첩(東萊郡田丁柱貼)이라는 제목 하에 양전대장을 마련하였다. 이 양전대장의 내용을 담기 위하여 필자는 조선의 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지리지』를 응용하여 한 촌락의 토지결수를 78결 정도 보았다. 즉 앞서 살폈듯이 동래군의 직속지역은 16개 촌으로 보았으므로 전부 합하면 1248결 정도 된다고 한다. 동래군의 영현인 동평현은 4~6개 촌, 기장현은 10개 정도의 촌으로 형성되었다 한다. 필자는 신라촌락문서와 비교하여 통일신라기의 부산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사상과 관련하여 통일신라의 대표적 사찰인 범어사에 대한 것은 채상식의 「범어사의 창건」이 있다.<sup>16)</sup> 이 글은 한국의 사상사 인식의 태도와 통일신라시대의 화엄종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 즉 화엄종은 원융사상 즉 통합사상이 핵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의상은 특히 실천신앙을 중시하고 강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상이 표방한 실천사상은 어떠한 것인가

16) 채상식, 「범어사의 창건」 『부산의 역사와 자연』, 부산라이프신문사, 1992.

가? 이에 대해 필자는 의상의 사상이 아미타불신앙 즉 내세구원신앙인 점은 당시 원효가 표방한 실천신앙과도 맥락이 닿지만 단순히 이것에만 머물지 않고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관음신앙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필자는 이러한 의상의 화엄종이 통일이후 전제적 왕권을 구축하려는 왕실과 이 속에서 신앙적 구원을 갈망하는 민들의 고난에 대한 해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화엄종의 특징은 또한 9세기에 범어사가 지방인 부산에 중창된 배경과도 관련된다. 즉 문무왕 18년 의상대사에 의해 범어사가 창건된 이후 흥덕왕대에 중창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를 지방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화엄종의 성장과 당시 사원이 신앙외적인 기능 즉 군사상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로까지 확대해 보고 있다. 또한 범어사의 창건내력이 실려 있는 「범어사창건사적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초창기인 문무왕대는 현재의 위치와는 다른 곳에 소규모의 사찰로 창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함께 하고 있다.

위의 논문은 범어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고 있다. 또 이 논문은 범어사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시대의 의상의 화엄종의 특징을 함께 보고 있어 더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정미숙의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 사상계의 동향」이 서술되었다.<sup>17)</sup> 이 글은 강서구 녹산일대의 가야불교, 기장군일대의 원효계통, 범어사일대의 의상계열,

17) 정미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 사상계의 동향」 『항도부산』 19, 2003.

그리고 만덕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사상으로 구분하여 부산의 불교사상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먼저 원효사상에 대해 보면, 주로 기장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한다. 원효사상이 기장지역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통일신라대의 통일정책과도 관련된다. 문무왕대에 진골귀족세력을 배제시키고 관료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점차 지방에 대한 직접적 통치체제를 실현하려고 하였다는 점과 연관지어 보고 있다. 『기장현읍지』에는 선여사, 취정사, 안적사, 장안사 등 4대 사찰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후대의 기록이지만 모두 원효가 창건했다는 전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논문에서는 국가가 원효의 사상을 중심으로 지방장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원효의 사상은 무엇일까? 필자는 원효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원효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마음의 본질적인 평등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심과 집착을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불성의 체(體), 즉 불성의 본 모양은 일심이라 한다. 원효에게 일심은 만물의 본원이며, 일심은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법을 포섭하고 있다. 나아가 일체법은 중생심이므로 일심은 곧 중생심이다. 그러므로 불성이 곧 중생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중생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중생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佛)의 불가사의한 훈습력과 대비원력에 의지하여 무생인(無生忍)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효의 사상은 비신라인이나 차별받는 지방민

또는 피지배층에게는 불교를 통한 극락으로 가는 진정한 해탈의 방법으로 생각되어지고 국가로서는 이러한 원효의 사상을 통일 이후 대민장악의 방식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리라 보았으며, 이에 부산지역에까지 원효사상이 전파되었다고 본 것이다.

의상의 사상은 부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범어사와 관련된다. 범어사가 문무왕대에 창건하여 흥덕왕대에 중창되었다는 것은 종파불교의 중추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종이 이 시기에 지방사회로 확산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한다. 의상은 지위와 신분이라는 세속적인 위계질서를 벗어나 불법 앞에서의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노비와 토지가 결합된 장원경영 보다는 탁발에 더욱 가치를 두었다. 세속사회는 경주, 진골귀족의 특권을 보장하는 골품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중고기 불교교단은 이들 상층지배집단을 배경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의상이 평등이념을 천명하고 탁발을 실천한 것은 불교적 평등사회를 지향하려는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다. 탁발수행은 지방사회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원소유 토지의 경작이나 지배층의 시주에 의존한 경주불교계와는 분명 다른 점이였다. 그것은 기왕에 소외되었던 지방과 일반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빈민 출신의 진정(眞定)이라든가 귀족의 가노 출신인 지통(智通)이 의상 문하에 출가하여 의상의 10대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의 교단 내에서만큼은 계급평등이 구현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상의 불교철학이 세속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사상적 경향이 경주 외곽 부산지역까

지 화염중 사찰이 증견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는 신라말에 세워진 것으로 보았던 만덕사를 중심으로 선사상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과 가까운 창원의 봉림사지와 성주사가 당시 유입된 선사상과 관련하여 신라말의 선종의 유행과 연관짓고 있다. 그러나 논문은 선사상과의 관련을 단지 금당의 규모와 지리적인 인접만으로 설명하고 있어 필자의 무지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소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통일신라기 부산지역의 불교사상의 흐름을 원효, 의상 그리고 선사상이 모두 만나는 지역으로 상정하여 이를 종합으로 그려보았다는 것은 의미있다.

대외교류는 이 시기의 부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종봉의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가 있다.<sup>18)</sup> 이 논문은 제목에 나타난 것과 달리 통일신라를 주대상으로 한 점이 특징이다. 논문은 당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를 살피고 있다. 먼저 통일기 이후 우호에서 대립관계로 변질된 신라와 당의 관계, 그 속에서 신라의 대일관계의 개선, 그리고 8세기 전반 율령국가체제를 갖춘 일본과의 갈등이라는 각축 속에서 이루어진 교류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라가 대당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상대적으로 대일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였던 이유를 당의 압박공세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다. 이렇듯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는 공무역이 우선이 되었겠지만 관계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경제적 목적에서 민간상인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중국·일본·통일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부산지

18) 이종봉,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19, 2003.

역은 해안의 입지적 조건을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교역물품을 통해 부산의 대외활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당무역의 물품은 주로 공무역과 사무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통일신라의 대당수입품은 금(錦)·채(綵)와 같은 고급 견직물과 금은세공품이 주종을 이룬 것에 반해 수출품은 비단과 같은 고급 견직물류, 금은세공품, 해표피 등의 짐승가죽과 우황 인삼 등의 약재, 그리고 두발, 그리고 과하마(果下馬)·소마(小馬)·마(馬)·개 등과 같은 짐승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말’이다. 부산 절영도가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명마의 생산지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명마가 진골귀족과 왕에게 선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말의 생산지였던 부산은 8~9세기 직접 대외교류에 참여하기보다는 국가 혹은 왕실을 통한 간접적으로 대외교류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의 대외교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논문에서 대일교류를 공적교역과 사적교역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된 이후 실제로 양국을 연결해 준 것은 민간 상인들이기 때문에 국교단절 이후를 사적교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 제시한 752년에 작성한 「매신라물해(買新羅物海)」라는 자료에서 보면, 일본정부가 좌우대신에게 면을 지급하여 신라의 교역물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게 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공무역이 단절된 상태에서 민간무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신라말 대외무역의 중심지로 부산이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그전까지 대외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

었던 청해진의 장보고의 죽음을 들고 있다. 장보고가 살해되고 청해진이 폐쇄된 이후 대외교역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약화되면서 남해·서해안의 여타 지역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해안의 경우 금주(김해), 강주(진주), 그리고 울산 등지에서 대외교류가 활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이 지역에 각각 김윤희, 왕봉규, 박윤웅이라는 호족세력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사료상에는 부산지역의 대외교류의 주도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울산과 김해 그리고 진주를 잇는 남해안의 교역세력 가운데 부산지역이 빠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에 논문에서는 동래의 호장세력인 동래정씨세력을 주목하였다. 또한 동래 지역은 삼한·삼국초기에 독로국 혹은 거칠산국이 존재하였고 연산동 복천동고분군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치세력을 가진 지배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래의 호장인 정문도는 동래지역의 특산물인 말의 교역에 직접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동래 절영도의 말은 견훤과 관련하여 사료에 나타나는데, 견훤은 일찍이 동남해안인 진례·동래 등을 장악하였고 이 지역은 신라를 공격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었던 것이다. 또한 견훤은 922년, 929년 양 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대일교섭을 시도한 전력이 있으므로 부산이 지정학적으로도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은 이렇듯 대일교역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로서는 중요한 물품인 말의 생산지가 이곳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종봉의 논문은 이상과 같이 대당과 대일관계의 시기적인 특징을 살피고 그 속에서 교역품을 고증하고 있다. 이러한 교

역품 가운데 말이 차지하는 위상과 말생산지로서의 절영도, 그리고 부산의 호족세력으로 추정되는 정문도에 주목하여 대당, 특히 대일교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살피고 있다. 물론 논문의 맺음말에서도 밝혔듯이 고고학적인 출토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문헌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산의 통일신라의 대외교류를 밝힐만한 고고학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생각한다.

문화재는 조원영,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문화재」가 있다.<sup>19)</sup> 이 글은 불교건축(가람배치, 불탑, 석등), 불교조각, 불교공예(사리기, 문양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통일신라기 부산 문화재의 연혁과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장점이다. 단지 아쉬운 점은 논문의 기술이 나열식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각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논문의 머리말에서술되어 있듯이 문화재란 민족의 정신적 유산의 실체이다. 물론 논문의 말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대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지만 각 문화재의 위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문화재와 함께 서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분은 황경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의 민속문화」가 있다.<sup>20)</sup> 논문은 의식주(의복과 장식·식생활·주거생활)·일상의례(출생의례·성년식과 혼례·장례)·세시풍속·신앙생활·구비문학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각 시대의 큰 흐름을 보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먼

19) 조원영,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문화재」 『항도부산』 19, 2003.

20) 황경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의 민속문화」 『항도부산』 19, 2003.

저 각 시기별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sup>21)</sup> 대상시기를 통사적으로 삼국·통일신라로 기술하고 있어 통일신라만의 민속·문화적인 특징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예를 들어 통일신라사회는 삼국을 통일하여 백제·고구려유민을 복속·통합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시기이므로 이에 필요한 문화적 특징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삼국보다 광대한 문화 또는 삼국 융합적인 문화에 대한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라말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부산은 반신라 또는 반고려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상정되므로 신라중대와 다른 민속·문화적인 차이가 드러나리라 본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의 머리말에 민속문화의 정의를 ‘기원적으로는 개인적인 산물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인들에 의해 널리 수용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온 집단의 문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 산물인 문화가 집단적 산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는 역사적, 지리적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서술에는 그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여러 요인 등을 함께 설명하면 좀더 구체화된 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논문에서도 기술하였듯이(150쪽) 절영도신사, 금정구 하정리 동제 때 재차에 마당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10월 5일을 말날이라고 하여 우마를 위한 제의를 베푸는 점은 단순히 말을 기리는 지역적 문화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는 삼국통일 이후 이 지역이 군사적인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 연구사를 정리하는 필자가 역사전공이기 때문에 국문학을 전공하는 논문의 필자와 서술방식의 차이는 있으리라 본다. 이점은 양해바란다.

또한 구비문학 부분에서도 전설은 민중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실제 전설만을 나열할 뿐 그것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 또한 연구사를 서술하는 필자의 무지로 인한 것이겠지만 구비문학 부분에서 민요가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상에서 통일신라시대 부산역사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았다. 주로 문헌학적인 연구만 대상으로 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고고학적인 발굴은 많지 않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싶다.

## IV. 고려시대 부산역사의 연구 동향

### 1) 문헌부분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분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삼국의 지역적 불안감을 통일신라시대에 마무리지었고 그 이후 중앙의 문화가 지방으로까지 전파되면서 고려시대는 초기부터 찬란한 문화유산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부산은 인근지역과 다른 역사적 이점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도의 이전이다. 통일신라기까지 수도가 경주였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었던 부산은 수도를 방어하고 또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수도가 개경으로 옮겨짐에 따라 부산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문헌학적 고찰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이다.

먼저 후삼국기부터 고려시대의 부산의 위상을 그린 것이 정용숙, 「고려건국기의 지방사회와 부산」 「고려지방제도의 정비와 부산」과 채상식, 「고려중·후기의 부산」 「인물과 문화」이다.<sup>22)</sup> 이 글은 고려시대 부산을 세부적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정용숙은 후삼국 분립기의 세력판도 속에 나타난 부산과 후백제와 관련성, 그리고 고려초기 지방제도의 변화를 태조대부터 현종대까지 세세하게 고찰하여 부산의 모습을 고증하고 있다. 또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교통, 통신, 방어시설인 역참, 조창, 봉수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수취지역으로서의 부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채상식은 부산의 역사적 측면의 성격을 파악하여 고려 중·후기의 부산을 설명하고 있다. 즉 부산은 지방행정의 중심이기 보다는 수취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또 이러한 활동은 해상을 통해서 행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부산의 이러한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중기 이후 사회변화와 함께 농민·천민의 난, 몽고항쟁과 삼별초의 난, 그리고 왜구의 침입과 관련지어 부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물과 문화」편을 서술하여 동래 지역의 주도세력, 특히 동래정씨가 이 지역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래정씨가 무인난 이전에 부상되었다가 고려말에 다시 정계에 등장한 배경으로 동래정씨의 문벌귀족화와 대몽항쟁기와 삼별초의 난이 일어난 시기에 동래가 반정부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동래정씨의 입지가 그만큼 약화되었

22) 『부산시사』 1(1989)의 통사 가운데 ‘고려시대의 부산’이라는 항목 아래에 정용숙, 「고려건국기의 지방사회와 부산」 「고려지방제도의 정비와 부산」과 채상식, 「고려중후기의 부산」 「인물과 문화」가 서술되어 있다.

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고려말에 동래정씨는 지방토착세력으로서 유교적 소양을 쌓아 신진사대부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 왜구의 침입으로 이 지역이 국방외교의 중심지역으로 중요시되는 점은 이 지역의 토착세력인 동래정씨의 위상을 강화시켰으리라 보고 있다. 동래정씨가문의 연구가 이렇게 고려후기 부산의 변화와 함께 설명되어 있어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구산우의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sup>23)</sup> 고려시대의 부산지역에 설치된 세군현의 읍치, 동래현(해운포-지금의 수영구 망미동 일대)·기장현(기장군 기장읍 교리일대)·동평현(부산진구 당감동 일대)과 부곡제 지역인 고지도부곡(일제시기에 부산진을 매축하면서 없어진 고지도라는 섬), 조정부곡(금정구 두구동 일대), 형변부곡(부산진구 용당동 일대), 부산부곡(부산진구 일대)과 1개의 생천향(남구 대연동 일대), 그리고 3개의 염소의 위치를 살피고 있다. 또한 기장현에는 고촌(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일대)·사랑촌·사야·결미의 4개 부곡과 1개의 염소의 위치까지 추정하였다. 특히 고고학적인 발굴 보고서를 활용하여 동래현에 ‘동면’·‘북면’·‘남면’ 등의 방위명을 띠는 면이 있는 점, 그리고 동평현에도 ‘면동래군’·‘남면동’·‘남면’ 등의 기와명, 기장의 교리 일대의 ‘서면’이라는 기와명의 출토를 들어 이 시기에 면리제의 시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살피고 있다.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면리제는 조선시대에 실시된 지방제도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면리제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된 점은 이에 대한 연구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3) 구산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항도부산』 20, 2004.

다음은 지방관의 역할에 대한 글을 서술하고 있다. 동래현은 현종 9년을 기점으로 주현에서 속현으로 강등되고 그 이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다시 주현으로, 기장현은 예종 3년 이후에 감무가 파견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즈음하여 주현으로 승격되었다. 지방의 위상에 따라 지방관과 속관의 품계가 달라졌을 것이고, 향리 또한 세 군현의 정(丁)의 수에 따라 향리의 직임과 수가 달랐다고 보아 부산지역의 경우 최소 41명 정도가 활동했음을 유추하였다. 그러한 향리로 동래정씨의 일원으로 활동한 정지원과 정문도가 동래군의 호장으로 주목하였다.

그 외 부산지역의 지방군과 역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그러한 예로 속현이었던 동평현의 경우, 그 출토유물 가운데 ‘삼품’이라는 기와명이 나왔던 것에 주목하여 촌류2·3품군과 연관 짓고 있다. 이에 동평현에 소속된 촌류 2·3품군은 관아 건물에 사용되는 기와를 굽는 것을 비롯하여 지방관청에서 요구되는 여러 형태의 노동력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의 22역도 가운데 부산이 속한 금주도를 고찰하여 그 소속으로 소주(동래), 아등량(기장), 기장역, 덕천(지금의 북구 덕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행정조직 하에 지방행정의 업무와 과정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보고 있다. 지방관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세수취인데, 속현이었던 부산의 위상과 관련하여 속현의 수취단위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연계하여 살피고 있다. 그 외에 지방관은 백성의 질고와 실직자를 살피고, 田犯律과 사시금(四時禁)을 규찰, 효제염결(孝悌廉潔)을 닦고 정무재이(正茂才異)한 자를 살피며, 또한 전야벽(田野闢)·후구증(戶口增) 등

을 감독하였다고 한다.

이 글은 부산의 위상이 신라에 비해 낮아진 과정을 지방행정 구조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상황을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지방행정담당자의 기능적 측면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부산에 많이 존속했던 부곡제지역의 지방관의 업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여 아쉽다.

다음에는 이정희의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경제-특히 수취체제를 중심으로-」가 있는데 이는 부산의 경제부분을 다루고 있다.<sup>24)</sup> 이 글은 오랫동안 속현이었던 동래현, 동평현, 기장현이 조세수취의 직접적인 단위가 될 수 있었는가를 살피고, 한편으로 최종적인 수취의 책임은 주현의 수령에 있기 때문에 이들 속현은 양주와 울주의 침탈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에 많이 존재했던 부곡제지역은 속현보다도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은 훨씬 열악했을 것으로 보았다.

먼저 이러한 경제적 부담 가운데 조세부분을 살폈는데, 부산지역의 1인당 토지규모와 조세액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추정엔 불과하지만, 『세종실록지』 동래현조에 의하면 15세기 전 반대의 경우 1인당 0.57결에 의거하여 고려시대는 약 1결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동래현(동평현 포함)이 납부하는 조세대상은 논 763결과 밭 524결 정도, 기장현은 584결이므로 조세액은 각각 동래현(동평현 포함) 839석(수전조)·786석(한전조)과 기장현 292석(수전조)·438석(한전조)으로 추정한다.

24) 이정희,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경제-특히 수취체제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20, 2004.

여기에 부산지역민의 자립도까지 함께 살피고 있는데, 대개 중등전 1결을 소유한 사람을 보편적으로 볼 때, 이 토지에 생산되는 생산량이 11석 정도라 한다. 그렇다면 4인 내지 5인의 소가족 구성원의 고려시대의 부산사람들의 소비량은 16.8석으로, 그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음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조(調)의 경우 경제력에 따라 백정농민은 40자 조포를, 정호는 53자 조포를 부담하였고, 부곡민은 자료가 없어 추정하기 어렵지만 백정호와 구분없이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물은 동래현과 동평현은 종이·지초·표고·굴·석류·감·미역·상어·청 등이고, 기장현은 광어·대구어·홍합·상어·고등어·김·미역 등으로 주로 해산물에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동래현의 경우는 노루가죽·사슴가죽 등 육지동물에 대한 공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각 지역의 자연적 지형과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염분에 대한 것이 각각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염소는 기장현 1곳밖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금생산은 일반촌락민을 비롯한 부곡제지역민의 공통된 부담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용 즉 부산의 노동력 수취를 살피고 있다. 고려시대에 속현을 수취의 기본단위로 보는 한편 궁극적인 지방운영은 주현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속현은 주현의 수탈을 받게 마련이며 이러한 정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12세기 이후 속현지역에 감무를 파견하였다. 부산지역에 노동력을 담당할 수 있는 인구수는 『경상도지리지』에 의거하면 247호(동래현), 101호(동평현), 159호(기장현)이며 각 지역의 丁男수는 연구에 의하면 16~25%정도이므로 각각 287정, 54정, 75정이라

고 한다. 이 중에 요역을 담당한 자는 6정을 기준으로 1정을 내므로 각각 47정, 9정, 12정이며, 실제로는 이 정수에 향리로 활동하는 정호수를 제외한 수를 가리킨다고 한다.

이러한 부산지역민은 지리상 수도 개경과 멀었기 때문에 개경에서의 동원보다는 경상도지방의 공역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상정하였고, 그러한 것으로 만덕사의 건축, 축성역, 관선제작역, 수리시설역 등을 들었다. 특히 부산지역은 벼농사를 위해 치수 관개가 필수적이었고 수리시설의 역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이정희의 논문은 부산지역민의 부담을 조용조로 나누어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근대 민들의 부담을 연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민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구체성을 띠고 있다. 물론 이 논문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용한 자료가 거의 조선시대라는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고려후기 또는 조선전기라는 시대적 변화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본다.

고려시대 부산의 대외관계사 부분은 한정된 연구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산의 위상이 나말여초에 한 번의 변화를 겪은 이후 고려말에 이르면 다시 겪게 된다. 이는 부산이 고려말에 왜구의 침입과 관련된 지역으로 부상되었기 때문이다.<sup>25)</sup> 먼저 이정희의 일련의 논문은 왜구의 침입과 경상도지역민의 항쟁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김기섭의 논문도 일본의 정치정세와 관련하여 왜구의 발생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5) 이정희, 「고려말 왜구의 침입과 대외정책의 일단면-경상도지역민의 항쟁을 중심으로-」 『부산여대사학』 10,11합집, 1993; 김기섭, 「14세기 왜구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1997; 이종봉,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19, 2003.

이와는 달리 이종봉 연구는 부산의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고려의 대송관계와 대일관계 속에서 부산지역의 세력의 참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시기적으로 대송과 대일관계가 상호 굴절관계를 이루었던 12,3세기를 중심으로 이를 보고 있다. 이때의 고려와 송,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양국간의 상호 정치적·대외적 긴장에 따라 변동이 있어 공식적인 사절단 파견의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상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외관계 속에서 부산지역은 어떻게 대외무역에 참여하였는가하는 의문에서 당시 호족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산지역의 호족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부산 인근의 호족을 통해 부산의 대외무역의 실태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진도의 토호층인 한백의 활동에 주목하여 향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원거리 상업활동 또는 개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외무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 북구 덕천동의 왜성 주변의 고려시대 분묘의 출토유물 가운데 고급 청자, 동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토호층의 독자적인 대외무역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의 대표적인 교역품이 청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부산지역의 청자의 출토는 그러한 문화를 소유할 토호층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부산지역의 사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논문에는 부산에서 토호층들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 뿐만 아니라 개경 혹은 다른 지역에서 전개되는 대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살펴보고 있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낙동강과 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상인들

은 원근거리 무역에 적극 참여하였고 그 결과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기비사 등 큰 사찰의 단월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들은 고려의 13조창 가운데 부산 인근에 있었던 석두창과 통양창에 이르는 조운로를 이용하여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리라 보았다. 특히 대일교역의 중심이었던 객관이 부산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부산지역인들의 상업에로의 참여를 더욱 독려했으리라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에 대한 글로 황병익의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중핵, 「정과정」」이 있다.<sup>26)</sup> 이 글은 기존의 시조문학에 대한 설명이 언어학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정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정과정곡’을 관련시켜 사실을 복원하고 있다. 즉 단편적으로 살았던 당시의 정서의 심정에 대해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과정곡기념사업을 소개하여 부산시민으로서 정과정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키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정과정 옛터를 자세히 소개하고, 부산시민들에게 이곳을 알려서 문화적 중심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희망도 함께 들어 있다.

또한 고려의 사상에 대한 글은 채상식의 「인물과 문화」에서 약간 엿볼 수 있다.<sup>27)</sup> 고려후기 불교사의 흐름을 12세기와 원간섭기로 나누어 수선사와 백련사의 결사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사운동의 변질로 나타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의 축소, 간화선의 유행에 따른 사상적 비판력성 그

26) 황병익,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중핵, <정과정>」 『항도부산』 20, 2004.

27) 채상식, 「인물과 문화」 『부산시사』 1, 1989.

리고 승려의 세속화와 자질저하 등으로 결국 불교는 지방사회 향리층과 독서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불교계의 변화양상 속에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찰의 동향을 만덕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은 문화재에 관련한 글이다. 문화재에 대한 것은 앞서도 보았듯이 미술사와 관련하여 약간의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고려시대를 한정해서 보고자 한 글은 김현라의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문화재현황과 그 역사적 의의」이다. 이 글은 문화재를 행정문화재, 불교문화재 그리고 국방문화재로 나누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적극적으로 조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든다면 행정문화재로 읍성을 들어 그 치폐를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의 흐름과 관련짓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지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고려시대의 문화재의 흔적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문화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보니 조선시대의 것까지 소급하여 억측한 면도 적지 않다.

만덕사지의 3층석탑에 대한 연구는 박경원의 「만덕사지 삼층석탑 복원이건」이 있다. 이 논문은 비록 1980년대의 글이지만 만덕사지의 삼층석탑을 복원하여 만덕사의 사격을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문화재가 역사적 사실과 결부되어 우리에게 보다 사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논문을 언급한다.

다음은 최정혜의 「부산 만덕사지 사명 고찰」이 있다.<sup>28)</sup>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논쟁 중의 하나가 북구 만덕동의 만덕사지가 과연 『고려사』 등의 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만덕사인가

28) 최정혜, 「부산 만덕사지 사명 고찰」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11, 2004.

하는 것이다. 최근 만덕사지에 대해 3차 발굴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기와의 발굴에서 출토된 ‘기비사’라는 명문기와뿐만 아니라 ‘송선사(松善寺)’라는 기와명까지 출토되었다고 한다.<sup>29)</sup> 송선사는 새로운 사찰명이므로 이것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고 이 논문에서는 북구 만덕동의 만덕사가 문헌자료에 나오는 만덕사가 아니고 삼중대사 혜거가 주지로 있었던 사찰로 비정하였다. 그 증거로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정18년 금산사명향완(大定18年 金山寺銘香院)」의 명문을 들고 있다. 이 명문에 기비사라는 사찰명이 보이며 이곳에 삼중대사 혜거가 주지로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기비사라는 사찰명이 위의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의 만덕사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들지만 만덕사를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뜻에서 의미있는 글이라 본다.

이와 함께 기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정혜의 「고려시대 수막새에 대한 검토」<sup>30)</sup>와 「고려시대 평기와의 편년연구」가 그것이다.<sup>31)</sup> 이 논문들은 정작 부산지역의 출토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사적인 연구를 통해 부산의 출토물의 위상을 가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것은 11세기 새로운 형식의 일회문(日暉文) 수막새의 제작을 천태종의 출현과 관련시켜 보았으며, 후자는 고려시대 평기와의 편년을 문양의 종류와 방법 등을 통해 구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의 준거로 부산지역의 출토물인 만덕사지와 동평현성지의 기와가 이용되었고 동평현성의 것(11~12세기)이

29) 복천박물관, 「부산 만덕사지 제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2002.

30) 최정혜, 「고려시대 수막새에 대한 검토」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2, 1993.

31) 최정혜, 「고려시대 평기와의 편년연구」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5, 1996.

만덕사지의 출토기와(13세기) 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지었다. 기와류는 부산지역에서 고려시대 유물로 발굴된 사례는 많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므로 이러한 연구는 시대상을 복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학계에서 기와에 대한 문양과 제작기법으로만 시대를 편년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와의 원료 및 소성조건에 관한 제작공정을 구명하고 그 제작기술의 수준과 시기 및 시대적, 지역적 차이를 구명하는 연구가 있다. 그러한 변화속에서 부산지역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기와를 대상으로 기와의 물리적, 기계적 물성을 연구하는 논문이 있어 눈에 띈다. 바로 그것이 「부산지역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평기와의 물성평가」이다.<sup>32)</sup>

이 글은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경도, 기공도, 구성의 결정상, 소성온도, 물리 및 열적특성 등의 상호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평기와의 원료는 서로 다른 곳에서 공급되어 다른 곳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로 재료는 석영과 장석이 사용되었고 제조기술에서는 동평현성지 출토 기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에 대한 연구는 성현주의 「고려·조선시대 화문자기의 종류와 표현양상」이 있다.<sup>33)</sup> 이 글은 고려와 조선시대 화문자기의 종류와 표현양상을 검토하여 시대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연꽃은 고려시대에는 ‘극락정토’, ‘부처님의 진리’ 등

32) 김형순·최진삼, 「부산지역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평기와의 물성평가」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7, 1997.

33) 성현주, 「고려·조선시대 화문자기의 종류와 표현양상」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11, 2004.

불교적 의미를 상징하는 대표적 꽃으로 왕실 귀족층의 취향에 맞추어 매병, 탁잔 주자 등 고급기종에 사용되었던 것에 반해 조선시대는 다산, 풍요 등의 뜻으로 완, 향아리 등 생활용기에 민화풍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꽃을 문양소재로 제작된 여러 도자기들의 시대별 차이점은 도자기의 소비계층 및 꽃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시대정신, 유행했던 시문기법 등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결과라는 논지를 끌어내었다. 이 논문은 부산지역에 출토된 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연구에 초석을 삼을만하다.

성지에 대한 연구는 나동욱의 「부산지역의 성지에 관한 검토」와<sup>34)</sup> 「경남지역의 토성연구」<sup>35)</sup>가 있다. 전자는 부산지역에 있는 모든 성지에 대한 연구 속에서 동래고읍성과 동평현성지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다. 이를 좀더 심화시킨 것이 후자의 논문이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경남지역의 토성 가운데 동평현성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구는 종전 판축형식의 토성을 백제 고유의 성곽의 형태로 이해해오던 것을 경남지역의 토성연구를 통해 극복해 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앞서의 기와처럼 비교사적인 연구를 통해 부산지역의 성곽의 축성기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고려의 동평현성지의 초축이 6세기에서 9세기 단계로 보아진다고 구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인물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동래정씨에 관한 것인데, 동래정씨 가문분석과 함께 동래정씨의 대

34) 나동욱, 「부산지역의 성지에 관한 검토」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2, 1993.

35) 나동욱, 「경남지역의 토성연구-기단석축형판축토성을 중심으로-」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5, 1996.

표적인 인물인 정서에 관한 연구가 있다. 먼저 동래정씨 가문 분석으로는 박용운의 「고려시대 동래정씨 가문분석」<sup>36)</sup>이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정서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동래정씨의 가문 분석을 통해 고려 전·후기의 인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서에 관한 연구는 채상식의 「고려중기의 정치정세와 동래정씨」가 있다.<sup>37)</sup> 이 글은 정서 개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정서가 활동했던 고려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그의 출신가계를 살피고 있다. 특히 정목대에는 유교적 소양으로 과거에 입사한 신진관료였으나 그의 아들 정항대에 이르면 당시 외척이었던 이자겸과 대립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묘청과의 서경천도론도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표방함으로 인해 신진관료로서 왕의 측근이었음을 구명한 것은 의미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문벌과 신진관료, 또는 여기에 측근세력을 가담시켜 상당히 도식적으로 보는 입장을 극복하고 정항은 신진관료출신 이면서 왕의 측근세력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김기섭은 전반적인 고려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정서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sup>38)</sup> 즉 동래지역과 동래정씨, 인종대의 정치와 정서의 입지 그리고 정서의 유배와 「정과정곡」이라는 항목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그리고 있다. 또한 여운필의 「정서의 생애에 대한 새로운 검토」<sup>39)</sup>는 새로운 자료인 「해동백계산옥룡사증시선각국사비명병서(海東白雞山王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并序)」

36) 박용운, 「고려시대 동래정씨 가문분석」 『태동고전연구』 10, 1993.

37) 채상식, 「고려중기의 정치정세와 동래정씨」 『부대사학』 28-29합집, 2005.

38) 김기섭, 「정서」 『한국사인물열전』, 돌베개, 2003.

39) 여운필, 「정서의 생애에 대한 새로운 검토」 『수련어문논집』 24, 1998.

를 통해 정서의 생몰연대, 관력 등을 세밀하게 고증하고 있다.<sup>40)</sup>

동래정씨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최근 『과정문학의 재조명』에서 찾을 수 있다.<sup>41)</sup> 이 연구서에는 「정과정곡 노랫말 풀이에 대한 회고와 전망」(김인택), 「정과정 연구의 성과와 전망」(조태흠), 「정서의 가계와 일생」(정무룡), 「고려중기 정치정세와 동래정씨」(채상식), 「‘정과정’의 어학적 해석」(김봉모), 「정과정곡의 문학사적 의의」(김쾌덕), 「정과정의 진작」(김승찬), 「진작의 악곡 분석」(황의중), 「‘정과정’ 한시의 서정적 적층에 대하여」(정경주), 「‘거츠르신들’의 원형적 시각」(김무조) 등이 실려있다. 이러한 논문의 제목 면면만 보더라도 동래정씨 특히 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발굴관계자료

고려시대만을 대상으로 한 발굴보고서는 『만덕사지 발굴보고서』이다. 만덕사지 발굴은 부족한 고려시대의 자료를 복원하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만덕사지에 대한 발굴은 먼저 송계현·최정혜의 「만덕사지 발굴조사개요」에서 처음 밝혔다.<sup>42)</sup>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만덕사지의 발굴은 1990년

40) 「海東白雞山王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并序」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것으로 1712년(숙종 38)에 옥룡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복간본으로써 이 비의 음기에 정서의 관직이 밝혀져 있다고 한다. 이 음기가 작성된 시기가 정서가 동래로 유배되기 1년 전이므로 사료 부족을 보완해주는 뜻에서도 의미있는 자료로 보인다.

41) 파전한국학당편, 『과정문학의 재조명』, 파전한국당 연구총서, 1997.

42) 송계현·최정혜, 「만덕사지 발굴조사 개요」 『연보』 13호,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고, 금당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만덕사지가 『고려사』·『고려사절요』에서 기록된 만덕사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사지의 규모가 크고 사찰명이 동일한 것에서 추정된 것에서 의문을 품어 시행된 발굴이다. 이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100여점으로 거의 기와편과 자기, 철기류,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와당류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문양과 기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와 고려에 걸친다고 한다. 이 발굴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기비사’라고 새겨진 명문기와가 출토됨에 따라 지금의 북구 만덕사가 고려시대의 만덕사인가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고려시대 문헌에 보이는 만덕사가 현재의 만덕동의 만덕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비사라는 사찰명이 국내 문헌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고려시대의 이곳이 기비사였다가 어느 시기에 만덕사로 사찰명이 바뀌었지 않았는가 하는 가설도 가능하지만 보고서에는 현재의 발굴성가로 보아서는 이러한 가설도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만덕사지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보고서가 1993년에 출간되었다. 『부산만덕사지』라는 책명으로 출판되었는데,<sup>43)</sup>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유물의 실측과 함께 앞의 논문보다도 구체적으로 만덕사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해련·최정혜의 「만덕사지 제2차 발굴조사 개보」는 1990년에 실시된 만덕사지의 발굴이 금당지로 추정되는 부분에만 한정된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1997년 다시 발굴한 보고서이

---

1991.

43) 부산직할시립박물관, 『부산만덕사지』, 부산직할시립박물관유적조사보고서 제7집, 1993.

다.<sup>44)</sup> 이 글은 정식 보고서가 출간되기 이전에 이 발굴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제출된 것이다. 이때의 발굴은 금당지와 관련유구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1차때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1차때와 달리 주목된 것은 국내에서 출토된 고려시대의 치미 중 가장 큰 규모가 출토된 점이다. 전체 높이를 복원하면 1m 정도라고 하니 당시 사원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사찰의 초창은 나말여초이고 폐사는 여말선초일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석탑, 석등으로 보아서는 임진왜란 전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도 북구만덕사가 문헌의 만덕사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2차 발굴의 전반적인 보고서가 1998년 『부산 만덕사지 II』이다.<sup>45)</sup> 이 보고서에는 기비사와 만덕사가 부산시에 함께 존속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1976년에 간행된 『신라의 기와』라는 서적에 ‘신라기와가 출토되는 건물터로서 경남 구포읍에 「만덕리사지」가 있고 부산 동래 금정산에 「기비사지」가 있다’고 기록된 것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기비사명 기와만 출토되고 있어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제3차 발굴은 복천박물관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된 것은 아직 없지만 약간의 개요를 알 수 있는 것이 「부산만덕사지 제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이다.<sup>46)</sup> 그 대강을 보면 2001년 9월에서 2002년 1월까지 만덕사 금당의 강당지와 회랑지를 대상으로 발굴했다. 그런데 기존의 발굴

44) 이해란·최정혜, 「만덕사지 제2차 발굴조사 개보」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6집, 1997.

45) 부산시립박물관, 『부산 만덕사지 II』,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연구총서, 1998.

46) 복천박물관, 「부산만덕사지 제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2002.

에서 나타난 「기비사」명 기와뿐만 아니라 「송선사」기와명이 출토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송선사’ 명문기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앞으로의 만덕사지의 성격구명에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서 편찬한 『당감동성지』 I 은 문헌에 보이는 동평현성지인데,<sup>47)</sup> 이곳은 동래의 속현으로서 또는 양주의 속현으로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존재한 지역이다. 이 발굴에서 여러 출토유물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중 녹청자와 「대평(1021~1030)」으로 추정되는 「대평」명 기와편, 청자편, 상감청자편, 상감기법의 분청사기편, 「인수부」명(1400년, 1457~1556년)분청사기편, 「삼품」, 「남면동래군」, 「서면」, 「동…」 등의 명문기와 유물이 대상이 되었다. 이 유물을 통해 이 성지는 고려시대 초기에 축조되어 조선시기가까지 사용된 읍성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발굴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하층에서 출토된 녹청자의 제조시기의 정확한 여부를 알게 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감성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벽의 축조에서 판축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기법이 삼국시대에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경남지방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토성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sup>48)</sup> 이 보고서는 일부의 발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당감성지의 명

47)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당감동성지 I』, 1996.

48) 기와의 성곽에 대한 발굴이 백제지역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판축방식의 성곽이 백제 고유의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경남지역에도 이러한 양식의 성곽이 발굴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장에 있는 것이 나동욱의 「경남지역의 토성연구-기단석축형판축토성을 중심으로-」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집』 5, 1996이다.

확한 성격이 구명된다고 한다.

고려시대 읍성터에 대한 발굴에 대한 보고서가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출간한 『부산 망미동 동래고읍성』이다.<sup>49)</sup> 동래고읍성은 조선시대에 읍성이었던 지금의 동래구 명륜동, 복천동, 안락동 일대를 아우르는 읍성 이전의 읍성이라는 의미로 부르게 된 명칭이다. 현재 이 읍성의 위치는 수영구 망미동 일원이다. 이 보고서는 동래고읍성의 서북 코너인 성내와 체성 일부에 관한 것이다. 원래 2000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시굴이 이루어졌지만 그 보고서는 상당히 늦게 출간되었다. 이 성의 축조시기는 토성벽 조사에서 8세기 전후로 보았고 또 다량의 고려, 조선시대 와편이 출토되어 고려, 조선시대까지 존속한 성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조사에서 우물4정이 발견되었는데, 우물 바닥에 출토된 토기류를 보면 이 우물이 의례와 관련지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곳에서도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는데, 「官」 「甘 혹은 日」 「卍」 등 3종류이다. 「관」의 명문은 이곳이 관아였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감 혹은 일」 「만」 등은 앞서 말한 의례와 관련있지 않는가 보고 있는 듯하다.

그 외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굴보고서의 일부로서 고려시대 것이 언급된 것은 다음이다. 2006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출간한 『구포덕천동유적』이 있다.<sup>50)</sup> 북구 덕천동 유적은 지리적으로 낙동강 하구와 남해안에 접근하는 수로를 구비한 구릉이라는 장점 때문에 삼한시대,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묘가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청자를 비롯한 각종 유물은 고급스러운

49) 동의대학교박물관, 『부산 망미동 동래고읍성』, 동의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12, 2006.

50) 동아대학교박물관, 『구포덕천동유적』, 2006.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장자의 신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산 지역에 유력한 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시대의 목관묘의 조성연대는 11세기에서 12세기로 보고 있고, 이 시기에 출토된 청자류는 지역성을 띠다고 할 만큼 개성이 뚜렷하고 또한 인접한 만덕사지 출토품과 유사한 것이 많아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sup>51)</sup>

대개의 연구자들은 문헌사료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 사례는 문헌사료에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점을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의 부산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개성이 뚜렷한 청자와 출토 등은 이를 기반으로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을 볼 수 있고 고급청자는 이 지역의 세력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출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sup>52)</sup>에는 기장지역이 부산에 편입되면서 기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결과물이다. 내용은 기장지역의 고분유적, 성곽과 봉수, 사지·사찰 및 향교, 기장의 금석문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장의 다양한 모습을 추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것을 보면 철마면과 정관면의 일부에 걸친 고분유적, 서부리 산성과 기장고읍성, 봉수시설, 사지와 사찰의 흔적이 찾아진다. 특히 고려후기 왜구의 침입과 관련하여 읍성의 치폐와 봉수시설 등 군사시설의 흔적은 기장지역이 이 시기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sup>53)</sup>

51) 동아대학교박물관, 『위의 책』, 257~258쪽.

5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53) 이 글의 초고를 완성한 이후에 울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

녹산지역에 대한 연구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의 『녹산 문화유적 학술조사 보고서』가 그것이다.<sup>54)</sup> 이 보고서는 녹산지역이 부산시 강서구에 편입된 이후 그 지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현지조사는 1991년 10월 4일에서 1992년 1월 13일까지 실시되었고, 조사는 고고학분야와 문헌자료 및 기층문화조사의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고학분야를 보면 범방동 3층석탑(고려), 미음도요지(고려후기~조선전기), 옥포토기산지(7세기~고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산지역 문화유적지 대상지역 18곳에 비해서 살펴보면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고려시대의 중요 무역품에 청자가 포함된다고 하는 연구를 고려하면<sup>55)</sup> 이 지역의 도요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이 지역의 염업은 고려시대의 염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를 살펴보면 그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부산역사의 연구동향에 대

지구내 유적 기장 방곡리유적』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고려·조선시대 민묘가 대부분이며, 청자류와 수저류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참고바란다.

54)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녹산문화유산 학술조사 보고서』 1992.

55) 이종봉, 「앞의 논문」, 2004가 이점을 염두에 두고 동래지역의 독자적인 수출 품으로 청자를 들고 있다.

해 정리해 보았다. 이를 요약한 글로 맺음말에 대신하도록 한다. 먼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폈다. 부산역사에 대한 관심은 1963년 직할시 승격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이 글의 대상인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부분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심이 증폭된 것은 부산에 김해의 일부와 기장지역이 포함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지역사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부산시사편찬위원회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주관하던 부산역사의 관심은 더 나아가 전문적인 학자들도 이 연구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 『항도부산』 19집·20집과 『만덕사지』 등의 발굴보고서이다.

또한 개별 논문을 보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행정, 경제, 사상, 문화재,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이 시대의 부산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양 시대를 연구하는 사료로서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의 지리지 등을 원용하다보니 각 시대만의 특징을 나타내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도 있다.

또한 문헌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부산지역의 발굴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행정의 중심지였던 읍성의 발굴은 부산지역의 위상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또한 고려청자나 도요지의 발굴과 이에 관한 연구는 부산의 지형상의 장점인 대외교역 부분을 설명하는데 아주 필요하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는 한국사의 흐름에서도 중요한 시기이

다.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넓어진 국토와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며, 고려시대는 그것을 완성한 왕조이다. 따라서 부산은 수도 경주를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 교역, 그리고 대일외교의 중심지로서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자료와 발굴과 함께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